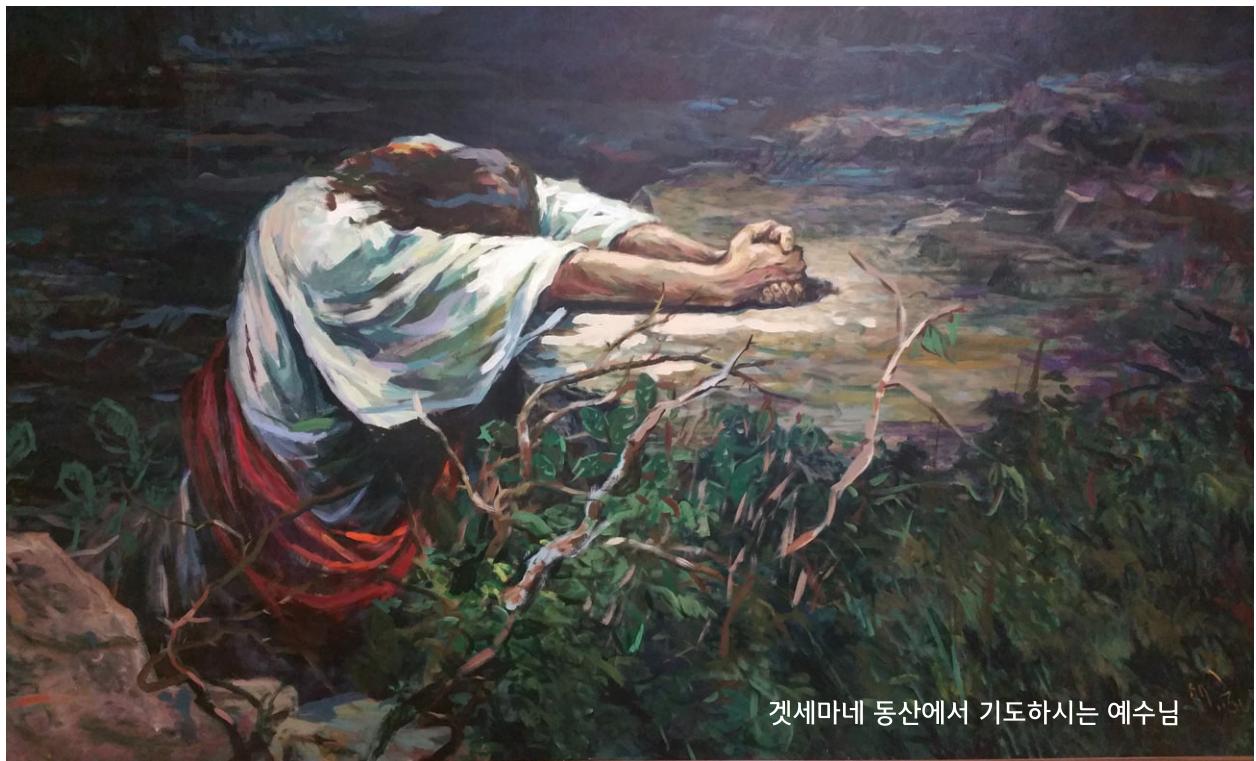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How You should pray.

제 1 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김정복 목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1권)”를 발간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눅11:1-2) 하신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중심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마 6:9)를
감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
많은 기도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1.
부족한 주의 종, 목사 김정복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How You should pray.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제1권)

제 1 강의 성경적 기도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 5

1. 성경적 기도와 성경 밖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 5
2.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 6
3. 성경에 나타난 죄와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어떤 것인가? | 10

제 2 강의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 | 12

1. 성경에 나타난 죄는 어떤 것인가? | 12
2. 예수님의 비유 | 12
 - 1)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 2)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 3)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3. 회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 15
4. 구원 받은 성도는 왜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하나? | 16
5.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또는 그 잣대는 무엇인가? | 18

제 3 강의 그런즉 내개로 돌아오라(Return to God) | 22

1. 말라기 1장에서 | 22
2. 말라기 2장에서 | 25
3. 말라기 3장에서 | 27
4. 말라기 4장에서 | 32

제 4 강의 예수님의 삶을 통한 기도교육 | 34

1.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서 기도를 배우자 | 34
2. 예수님의 삶을 통한 기도교육은 어떤 것인가? | 34
3.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 | 44
4.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 | 45
5.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 | 46

제 5 강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교육

제 6 강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제 7 강의 기도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제 8 강의 성령 하나님과 기도

제 9 강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제 10 강의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 11 강의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 12 강의 주기도 강해

1. 성경적 기도와 성경 밖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2.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3. 성경에 나타난 죄와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어떤 것인가?

1. 성경적 기도와 성경 밖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기도에는 “성경적 기도(Biblical Prayer)”와 “성경 밖의 기도(Non Biblical Prayer)”가 있다.

“성경적 기도”는 성경중심의 기도 곧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말한다.

성경적 기도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께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26:39, 뉴22:42)

- 1) 회개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막혀있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통로이다.
- 2) 기도는 사탄의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방패이다.
- 3) 기도는 성도가 거룩해 지는 성화의 길이다.

○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4:17)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26:41)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딤전4:5)

“성경 밖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 또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중심의 기도를 말한다.

이 세상에는 “성경적 기도” 보다 “성경 밖의 기도”가 더 많이 행해지고 있다.

“성경 밖의 기도”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간구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므로 성경 밖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上達)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임의로 할 수 있으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

나님께 상달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 곧 성경적 기도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合)한 기도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신다.

2.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기도하는 나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어야 한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 하여야 한다.

○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시102:1-2)

○ Hear my prayer, O LORD; let my cry for help come to you. Do not hide your face from me when I am in distress. Turn your ear to me; when I call, answer me quickly.(Ps 102:1-2)

1) 하나님께 “상달(上達)되는 기도”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

시편102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하며, 시편 기자는 먼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도 한다.

2) 내가 드리는 기도가 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까?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4:17)고 말씀하신다.

Repent(NIV) / Turn away from your sins.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NIV)

기도할 때에 나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죄가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4:17)고 하셨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 따라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게 된다.

기도의 상달(上達)과 적색신호등(赤色信號燈)과 청색신호등(青色信號燈)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적색신호등이 켜져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며, 회개하면 청색신호등이 켜져서 다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게 된다.

○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66:18)

○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사1:15)

○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발함이라(사59:1-3)

○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전3:7)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 적색신호등(赤色信號燈)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은 허물과 죄가 있으면, 적색신호등이 켜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회개하면 청색신호등이 켜져서 좋은 것을 받게 된다.

○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렘5:25)

3)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시편102편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 하소서”한다.

이는 나의 죄를 자백하고(요일1:9)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상달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기도이다.

“나의 괴로운 날”은 금식하며 속죄하는 속죄일(7월10일, Yom Kippur)을 의미한다.(례23:26-32)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은 사랑(Agape)(요일4:8,16)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롬8:38-39),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해 주신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이다.(시106:1)

선지자 다니엘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음을 알고 즉시 회개한 후에 다시 기도를 드렸다.

“주여, 들으소서” (Lord, listen) 하고 기도하였으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음을 알고 “주여 용서하소서” (Lord, forgive) 하고 회개한 후에, 다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Lord, hear and act)하고 기도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도하기 전에 “주여”를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다.

○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손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단9:19)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4:8, 16)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4) 왜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는가?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다. 그 이유는 고대로부터 사람은 연약하고 자연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었으며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와 인재(人災)를 피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신(神)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가뭄, 기근, 기아, 홍수, 태풍, 화재, 풍랑 등 자연에 의한 재난(天災)과 전쟁, 도적, 외침(外侵), 노예, 살인, 범죄 등 사람에 의한 재난(人災)과 질병, 노약, 가난, 죽음 등, 불가항력(不可抗力)적인 연약한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신(神)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시시대의 샤마니즘에 의한 원시적인 기도로부터 고등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다. 샤마니즘(shamanism), 토템이즘(totemism), 마나이즘(manaism), 무당(巫堂), 박수(巫男), 굿거리, 조상숭배, 사당(祠堂) 등 원시적인 종교로부터 유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시크교, 조르아스타교, 유대교 등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으며 이단(異端)들에게도 기도는 있다.

(1) 다른 종교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들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첫째는 연약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 방패의

한 수단으로, 둘째는 인간의 부족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셋째는 육체의 건강과 축복을 위하여, 넷째는 사후(死後)의 문제와 자손들의 복(福)을 빌기 위하여, 다섯째는 내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대적과 원수에 대한 신(神)의 보응을 소원하는 저주의 기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의 기도관행(祈禱慣行)은 일반적으로 내세보다는 현세의 축복을, 영혼의 구원보다는 육체의 성공을 위한 기복적, 무속적 기도와 신의 뜻보다는 인간의 소원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음을 짓는 기도보다는 옷을 짓으며, 신(神)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원하며, 하나님(God) 중심의 기도가 아닌 사람중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에 치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2) 유대인의 기도관행은 어떤 것인가?

첫째, 구약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성문서(Sacredwriting)에는 많은 기도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전(Temple)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리어지고 있다(사56:7). 또한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인 회당(synagogues)은 고대 세계에서 정확히 기도하는 장소로 구별되었으며 회당은 넓은 의미로 기도의 집, 기도의 장소 등 기도라는 말로 대표되어 있다.

둘째, 구약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시대 이전부터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었다. 유대인들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성전과 회당과 가정에서 축제나 식사 때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시55:16-17)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였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단6:10). 다니엘은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동안 자신을 모함하려는 원수들의 면전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셋째, 그러나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죄의 용서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외식적(外飾的, hypocritical)이고, 형식적인 잘못된 기도관행에 빠져 있었다.(마6:5)

넷째, 당대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관행, 즉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자랑이나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이며,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기도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잘못된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꾸짖으셨다.(마6:5-18, 23:1-39, 뉴18:9-14)

3. 성경에 나타난 죄와 예수님의 대속(代贖)사역은 어떤 것인가?

- 1) 성경의 모든 죄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며, 피조물을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 2)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이 모든 죄를 다 범했고(롬3:10-18, 23) 죄의 삶은 사망이므로(롬6:23) 온 인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 죄 문제 곧 죄의 삶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직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야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도록 계획하셨다.(창3:15)
- 3) 이에 죄 없으신(히4:15),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육신(incarnation)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요1:14)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요19:30, 34),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히9:22, 레17:1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요3:16 고전15:22 요14:6)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며,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요16:9),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요3:16)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사53:4-8)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사(요일4:9-10) 온전한 중보자(Mediator, 딤전2:5)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가 이룩한 의(義, Righteousness)인데, 그 “의(義)”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能動的順從, Active Obedience)과 수동적 순종(受動的順從, Passive Obedienc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仲保者) (딤전2:5, 히9:15)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사 비하(卑下, humiliation)의 과정을 거치셨으며, 그 결과 수동적으로 승귀(昇貴, exaltation)의 과정에 이르게 되신다.(빌2:5-11)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 비하(卑下, Humiliation) 하셔서(빌2:5-8)
성육신(成肉身), 수난(受難), 죽으심(死亡), 매장(埋葬) 되셨고,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 승귀(昇貴, Exaltation) 하셔서(빌2:9-11)
부활(復活), 승천(昇天)하셨고, 앞으로 재림(再臨) 하신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끓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5-11)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욘3:5-8)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赦)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며(요일1:9),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은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히10:17-18, 사43:25)고 말씀하셨다.

- 1)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 2)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赦)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히10:17-18)
- 3)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사43:25)

1. 성경에 나타난 죄는 어떤 것인가?
2. 예수님의 비유
 - 1)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 2)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 3)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3. 회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4. 구원 받은 성도는 왜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하나?
5.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또는 그 잣대는 무엇인가?

1. 성경에 나타난 죄는 어떤 것인가?

- 1)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시36:1-4, 롬3:9-18)
- 2)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삼상15:22)
- 3)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이다.(출20:1-17)
- 4)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마22:37-38)
- 5)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마22:39, 뉴10:29)
- 6)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요16:9)
- 7)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는 것이 죄이다.(롬1:15)

2. 예수님의 비유 (눅15:1-10)

1)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눅15:3-7)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눅15:4)

이 비유의 초점은 들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이 아니고, 잃은 양 한 마리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엡1:4-6)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 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2)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눅15:8-10)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 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눅15:8)

이 비유의 초점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아니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열 드라크마를 채우는데 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땅 끝까지 이르러 열 드라크마가 다 채워질 때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 까지 부지런히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3)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눅15:11-32)

탕자의 죄와 회개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눅15: 1, 11-24)을 뜻하고,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눅15: 2, 28-30)을 의미한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모두 텡자들이다.

(1) 아버지를 버리고, 재물을 택한 후에 아버지를 멀리 떠난 둘째 아들

아버지냐? / 재물이냐? (눅15:13)

(2) 아버지를 떠난 후에 자기 마음대로 허랑 방탕하게 산 둘째 아들

아버지 중심이냐? / 자기중심이냐? (눅15:13)

(3)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둘째 아들

아버지께 무관심 / 세상에만 관심 (눅15:13)

(4)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큰 아들

아버지를 믿지 않고, 아버지에게 불만족, 불순종, 불평, 원망, 반항하며
사는 삶(눅15:28-30)

둘째 아들의 죄

(1) 아버지를 버리고 재물을 택한 후에 아버지를 멀리 떠난 죄

(2)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 죄

(3) 아버지를 잊고 세상에 도취되어 사는 죄

(4) 아버지를 아버지로 예우하지 않은 죄

큰 아들의 죄

(1) 아버지와 함께 몸은 있으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죄

(2)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고, 아버지로 예우하지 않은 죄

(3)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 불평, 불만족, 원망, 반항한 죄

둘째 아들의 회개(눅15:14-21)

홍년이 들어 둘째가 궁핍한지라 저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은, 둘째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의 부름이다. 과거에 아

버지를 버리고 재물을 갖고 멀리 떠난 둘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나의 아버지”하고 부르며,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이다.

- (1)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한다.(15:14-17)
- (2)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라 부르고, 죄를 자복하리라고 생각한다.
(15:18-19)
- (3) 둘째 아들이 마음의 생각을 실천에 옮겨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15:20)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나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때에,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갈2:20),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눅15:20-21)

성경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용서가 입맞춤으로 이루어진 예(例)가 있다. 아버지가 아들과 입을 맞춤은 아들에 대한 죄의 용서와 사랑을 의미한다. 구약에는 다윗이 암살롬과 입맞춤(삼하14:33)으로, 신약에는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가 입맞춤(눅15:20)으로 나타난다.

- (1) 아직도 거리가 먼데(While the son was still a long way off.)하는 “거리”를 생각해 본다.
 - 가) 탕자와 아버지와의 지역적 거리
 - 나) 탕자와 아버지와의 마음(心)의 거리
 - 다) 탕자와 아버지와의 신앙적 거리
- (2)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 (3) 목을 안고 입을 마추니라.(눅15:20, 삼하14:33)
 - 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암살롬과 입맞춤으로 용서하다.
 - 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탕자와 입맞춤으로 용서하다.
- (4)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한다.(눅15:21)

○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암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암살롬과 입을 마추니라(삼하14:33)

○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면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암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눅15:20-21)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눅15:22-23)

아버지는 용서한 아들을 궁휼히 여기사 사랑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

- (1) 제일 좋은 아들의 옷을 입혀줌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
- (2)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아버지의 언약을 확인시켜 준다.
- (3) 발에 신을 신켜줌으로 종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준다.
- (4) 잔치를 베풀어 줌으로 이는 내 아들임을 세상에 공포하고 확인시켜 준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의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며 새롭게 아들의 신분과 아버지와의 언약의 관계와 자유인임을 세상에 공포하며 오직 사랑으로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이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세리와 죄인을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내용이다.

3. 회개는 어떻게(How) 하여야 하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며,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비하게 사는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던 모든 죄의 벽이 없어진다.

- 1)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My Lord), 나의 하나님(My God)으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sinful man, sinner)인 것을 인정한다.(눅15:2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Our Father in Heaven, you are my Lord and my God.
I am a sinful man. Forgive me my sins.”

- 2) 성령님께 과거의 나의 죄들이 기억나도록 간구하고 기억난 죄들을 자백한다.
- 3)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요일1:9)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14:26)

But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JN14:26)

6) 용서받은 죄인은 즉시 모든 죄(sins)와 악(evil)을 버리고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
(욘3:8)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은 즉시 과거의 모든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 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벧전1:15-16)

○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굽은 베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욘3:8)

○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1:15-16)

7) 용서받은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Fear God, Fear of the Lord)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피조물 보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스스로 낮아져서(Low), 겸비(Humble)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 회개한 니느웨성 왕의 겸비(욘3:6-9)

(2) 회개한 아합의 겸비(왕상21:27-29)

(3) 바벨론으로 끌려간 므낫세의 겸비(대하33:11-13)

(4)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겸비(왕하22:19-20)

(5)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의 겸비(대하12:1-2, 4-7, 12)

8)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7-18)

9)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시며 더욱 사랑하신다.

○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3:17)

4. 구원 받은 성도는 왜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

도는 의롭다고 칭함(稱義)을 받는다.(롬3:24)

칭의(稱義)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한 “의(義)”가 근거가 되고, 우리 의 “믿음”이 방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삶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 값을 나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죄의 삶이 없어졌다는 뜻이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성도는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으나,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새로 범하는 죄를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헬라어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dikaiow”인데, 이 말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란 뜻이다. 헬라어에서 “ow”로 끝나는 동사가 윤리, 도덕을 말하면 “…로 여김을 받는다”란 의미를 갖는다.

바울 사도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롬7:18-19)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하고 한탄하였으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롬7:25)하며, 육신 안에 거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고 승리를 고백한다.(롬7:15-8:4)

구원의 현재 면에서 우리는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옛사람)을 죽이고(고전15:31) 육신과 싸워 이겨야 한다. 바울은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한다”(롬7:22-23)하고 탄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일1:9), 용서하신 죄는 기억지 않으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될 때에,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며,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고전15:31),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갈2:20)

○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5.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또는 그 잣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또는 그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죄는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롬3:23) 만일 죄악이 심판의 기준이나 그 잣대라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가 심판의 기준이며 그 잣대이다.

-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롬3:10-11)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 죄에 대하여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요16:9)
-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2:37-38)

1) 다윗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회개를 많이 한 믿음의 사람이다.

- (1) 다윗은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대상28:3)
- (2)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간접살인한 사람이다.(삼하11:2-17)

다윗은 죄를 많이 범했으나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삼하12:13),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인하여 그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다윗은 여호와 앞에 많이 회개한 사람이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였다.(삼상17:45-47) 다윗은 믿음과 회개의 사람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행13:22)

- 하나님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대상28:3)
-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 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삼하12:13)

○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삼상17:45-47)

○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행13:22)

다윗은 시편에서 많은 회개기도로 자기의 죄를 자백한 사람이다.

(시편 6, 32, 38, 51, 102, 130, 143)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회개와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사람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며, 다윗의 혈통(마1:1, 롬1:3)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윗의 죄악이 아니고, 다윗의 회개와 믿음에 있었다.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1:1)

○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롬1:3)

2) 소돔과 고모라성과 니느웨성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과 니느웨성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으나(창18:20, 19:4-5, 론1:2)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은 회개할 죄를 알지 못하였고,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창19:24-25), 니느웨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하므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니느웨성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고 회개와 믿음에 있었다.

(1) 소돔과 고모라성의 범죄와 심판(창18:20-21, 19:1-29)

소돔과 고모라성에는 회개하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의인들만 있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2) 니느웨성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론1:2, 3:1-10)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성은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 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죄인들만 있었다. 따라서 니느웨성 사람들은 회개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 가) 니느웨성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굶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다.(욘3:4-5)
- 나) 왕이 조복을 벗고, 굶은 베를 입고, 재에 앉아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굶은 베를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을 선포했다.(욘3:6-8)
- 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성 사람들의 회개함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니느웨성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고 회개와 믿음에 있었다.

3)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었고, 사탄이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갔고, 가룟 유다는 회개없이 목매어 죽었다. (요13:2, 27, 마27:3-5)

- (1)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요13:2)
- (2) 가룟 유다의 마음 속으로 사탄이 들어갔다.(요13:27)
- (3)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다만 뉘우친 후에 목매어 죽었다. (마27:3-5)
- (4)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으나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마26:69-70)
나)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마26:71-72)
다)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마26:73-74)
라) 이때에 닭이 우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하니라.(마26:75)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통곡하며 회개한 베드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 가룟 유다는 죄악을 범한 후에 뉘우치기는 하였으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으나, 닭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한 통곡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베드로의 죄가 아니고 베드로의 회개와 믿음에 있었다.

4)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 (1)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은 그 사람의 죄와 울법이다.(레20:10)
- (2)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 사람의 회개와 믿음이다.(요8:3-11)
- (3) 이 세상에는 남의 죄를 심판할 의인은 아무도 없다.(롬3:10-18, 23, 12:19)

사람들은 남의 죄악을 율법으로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마음속으로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다.(요8:11)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여인의 간음한 죄가 아니고 여인의 회개와 믿음에 있다. 이 여인의 간음한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레20:10)

○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12:19)

5) 사도 바울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삼일 간 금식하며 회개한 후에 새사람이 되었다.(행9:3-9)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지자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후에 세례를 받은 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었다.(행9:15-19) 하나님의 용서와 택함의 기준과 그 잣대는 바울의 회개와 믿음에 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 말라기 1장에서
2. 말라기 2장에서
3. 말라기 3장에서
4. 말라기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요1:12)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엡2:8)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나?
(눅15:21)

1. 말라기 1 장에서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말 1:2-3)

- (1)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 (2)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권이다.
- (3)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고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며, 주권이다.(말1:2,요15:16,롬5:8)

○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15:16)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 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엡1:4-6)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2)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말1:6)

- (1)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 (2) 네가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고, 종이라면 주인을 경외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고 하신다.
 - (3) 여기서 제사장들아 하신 말씀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 (만인 제사장론)

만인 제사장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딤전2:5)이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 하셨으므로,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가리켜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한다.(생명의 말씀사 굿데이 성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으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임으로(히10:19-20),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지성소에서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10:19-20)

○ 너희도 산 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지니라(벧전2:5)

○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홀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홀을 얻은 자니라(벧전2:9-10)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3)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 주겠느냐?(1:7-8, 신15:21, 례22:22)

- (1) 너희가 하나님께 더러운 떡, 눈 먼 희생의 제물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은
- (2)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 그 짐승이 흄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흄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신15:21)

○ 너희는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베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레22:22)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겠느냐?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느냐?

- 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말1:9)
- 5)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혗되어 불사르지(燔祭)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말1:10)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민족이 크게 되리라.

- 6)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말1:11-14)
 - (1)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말1:11)
 - (2)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床)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느니라.(말1:12)
 - (3) 너희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흄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

냐?(말1:13)

- (4) 너희는 서원하는 일에 수컷이 있거늘 힘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몸은 거룩하여야 한다.

7) 너희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의 전이다.
(롬12:1, 고전3:16, 6:19)

-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
- (2)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6-17)
- (3)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전6:15-18)
- (4)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전6:19)

2. 말라기 2 장에서

제사장들의 불충성에 대한 책망

- 1)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말2:1)
제사장이라 함은 신약시대에 지성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벧전2:5, 9-10)
- 2)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말2:2)
- (1)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롬10:17)
(2)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히8:10)
(3)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 (4)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 (5)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말2:2)
- 3)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뜻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뜻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벼름을 당하리라.(말2:3)
- (1)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 (2) 뜻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뜻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며
 - (3)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벼름을 받으리라.
- 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말2:4-5)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 (1)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 (2)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A covenant of life and peace)이라. 이 언약을 준 이유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 (3) 레위인은 내 것이라.(민3:45, 롬1:6)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할 때에 문설주와 인방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땅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치셨고(출12: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 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출13:1-2)

이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출13:15-16) 하시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롬1:6)임으로 거룩해야함을 의미한다.

-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출4:22-23)
-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 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민3:45)
-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롬1:6)

5) 레위지파 곧 제사장들의 삶

- (1)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말2:6)
- (2)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어늘(말2:7)
- (3)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말2:8)
- (4)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말2:9)

6) 택함 받은 자의 타락한 삶

- (1) 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거짓을 행하며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이스라엘은 가중한 일을 행하였으며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 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리라.(말2:10-12)
- (2)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삿2:1-5, 보김)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려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시리라.(말2:13)
- (3) 여호와께서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네가 어려서 맞이한 네 짹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가 증인이라 네 심령을 삼가지 켜 그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말2:14-15)
- (4) 여호와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며,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거짓을 말하는 도다.(말2:16-17)

2. 말라기 3 장에서

그런즉 내개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참으시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내개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 (1)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라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말3:1)
- (2) 금을 연단하는 자와 같으리라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잣물과 같을 것이라.(말3:2)

(3)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리라

그가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말3:3)

(4)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봉헌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말3:4)

(5) 심판자로 임하리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중언하리라.(말3:5)

(6)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려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말3:6)

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말3:7)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 Return to Me.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 And I will return to you.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 How are we to return?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말3:7-8)

여기서 사람이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냐?

한글성경(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영어성경(KJV, NIV)에는 “God(하나님)”으로 되어있다.

○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하는도다.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말3:8)

○ Will a man rob God? Yet you rob me. But you ask, How do we rob you? In tithes and offerings.(Mal3:8)

한글 :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영어 : Will a man rob “God”? /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한글 :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영어 : But you rob “me.” / 그러나 너희는 나를 도둑질 하였다.

한글 :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영어 : But you ask, How do we rob “you”? /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 “In tithes and offerings”.

한글 :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영어 : You are under a curse, the whole nation of you, because ‘you are robbing me’ / 너희 온 나라가 나를 도둑질하고 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말3:8-9)

“You are robbing me.”는, “당신은 나를 도둑질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영어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 할 수 있는가?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the Whole Tithes and offerings)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도둑질 하는 것이고,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말3:8)

3)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신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은 어떤 것인가?
필자가 어느 집회에서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때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의 온전한 십일조와 현금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이 과연 소득의 십일조와 현금 즉 “돈”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자.

(1)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2)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가) 하나님께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말3:7)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도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라(마22:37-40)는 말씀이다.

- 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 한다는 말이며, 이는 하나님을 도둑질하였다는 말이다.
 따라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였느냐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의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이다.
- 다) 그러므로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둑질 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자식이 불효자식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한 성도이다. 부모님이 자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십일조와 봉헌물” 곧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말3:8, 례27:30, 습3:17)

(3)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와 사랑의 십일조와 봉헌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전체의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의 삶의 내용이다.

매일 24시간의 십일조인 2시간 24분과 봉헌물의 시간을 성경말씀과 기도로 살고, 매일 나의 언행심사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며, 한 달의 십일조인 3일은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며, 모든 소득의 십일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 바친다.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중심, 말씀중심, 기도중심으로 살며,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와 사랑의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내용이다.

- 가) 시간의 십일조 : 하루 24시간의 십일조 / 2시간24분 + @ 는 하나님의 시간이다.(약 3시간)
- 나) 음식의 십일조 : 한 달 동안 먹는 음식의 십일조 / 3일은 금식하며 말씀과 기도로 산다.

다) 소득의 십일조 : 모든 수입(Income)의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려 드린다.

라) 언행심사(言行心思)의 십일조 :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의 십일조를 드린다.

언행심사의 십일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주님 안에서의 삶을 말한다.(요15:4-7)

언(言) : 하루에 10번 말했으면 1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 씀을 읽고 전한다.

행(行) : 하루에 10가지 행동을 했으면 한번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거룩한 삶과 행동을 한다.

심사(心思) : 하루에 10가지 생각을 했다면 한번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한다.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삶이다.(Return to God)

- (4)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레11:44-45, 19:2, 벤전1:15-16, 딤전4:5-7)
- (5)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고후5:8-9, 앱5:10, 히11:5-6, 창22:12)
- (6)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것이다.(롬12:1-2, 요일2:15-17)
- (7)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거룩한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 가) 항상 성경 말씀을 먹고(겔3:1-3), 기도하며 거룩하게 산다.
(딤전4:5-7, 벤전1:15-16)
- 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받은바 은혜와 사랑의 십일조를 매일 하나님께 바치며 산다.
- 다) 주일을 성수하고 거룩하게 지키며(마12:8), 예배와 교회생활에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산다.
- 라) 예녹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다.(히11:5-6, 봄1:17)
- 마)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산다.(롬14:7-8, 고전15:31, 빌2:12)

- 4)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인가?
- (1)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 (2)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말3:10-12)
 - (3) 말3:10-12의 말씀은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친 후의 결과이지,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동기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의 십일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며 방법이다.

5)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말3:13-18)

- (1)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 가)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 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혗되니 그 명령을 지키고 금식하며 애통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하며
 - 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한다.
- (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 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 나)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시며
 - 다) 그 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3:13-18)

4. 말라기 4 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 1)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말4:1)
 - (1) 여호와를 대적하는 교만한 자(잠16:18)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 (2)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 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말4:2-3)
 - (1)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 (2)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 (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 3)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말4:4-6)
- (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 (2)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서는 이와 같이 결론도 없이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고 엄하게 경고의 말씀을 남기시고 끝을 맺는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선지자 세례요한을 보내사, 메시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사40:3-5, 마3:1-3, 막1:2-8) 그 후 예수님께서 오사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4:17) 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말1:2, 3:7-9)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의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참고 : 창15장-17장)



제 4 강의 예수님이 삶을 통한 기도교육

1. 예수님이 기도의 삶에서 기도를 배우자
2. 예수님이 삶을 통한 기도교육은 어떤 것인가?
3.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
4.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
5.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

1. 예수님이 기도의 삶에서 기도를 배우자.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셔서(마4:1-2, 농4:1-2), 기도로 사시고, 기도를 가르치시며, 기도로 마치신(눅23:46) 기도의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를 교육하신 기도의 스승이시며, 기도의 모범이 되신 분이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중 하나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하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눅11:1-4)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후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마6:9-13),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며,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범이시고, 기도의 교사이시며, 기도의 사람이셨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한 기도교육과 그 분의 말씀을 통한 기도교육을 통하여 기도를 배워야 한다.

2. 예수님이 삶을 통한 기도교육은 어떤 것인가?

1) 예수님의 금식기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님께 이끌리어 사십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몸소 40일 금식기도를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금식기도를 가르치셨다.

-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마4:1-2)
-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눅4:1-2)

금식기도의 기간 :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셨다.

금식기도의 방법 : 예수님은 오직 생수(生水)만 마시며 금식하셨다.

금식하실 때의 상태 :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금식기도 하셨다.

금식하실 때에 시험 : 금식하실 때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으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다.(마4:3-11, 뉴4:1-2, 신8:3, 6:16, 13)

우리도 금식기도 할 때에 사탄의 시험이 있을 수 있으나, 사탄의 시험은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 따라서 금식기도 할 때에는 반드시 성경을 통독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행하던 속죄를 위한 금식기도(례23:26-28, 을2:12-14)와는 전혀 다른 금식기도를 행하심으로 유대인들과 다른 금식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구약의 금식기도

- (1) 스스로 괴롭게 하며 죄를 속죄하기 위한 금식기도
- (2)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금식기도
- (3)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아켜 재앙대신 복을 내리시게 하고자 간구하는 금식기도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례23:26-28)

○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 사 뜻을 돌아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 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을2:12-14)

신약의 금식기도

- (1)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 금식 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6:16-18)

(2) 금식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이다.

○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17:20), 21절 없음,
단하: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17:21)가 있음

(3) 금식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이다.

○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행13:2)

(4) 금식기도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기도이다.

○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5:16-17)

(5) 금식기도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한 기도의 전신갑주이다.

○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6:11)
○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6:18)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금식기도는 구약의 속죄를 위한 금식기도와 달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사탄을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금식기도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여야 하며, 금식기도를 하므로 내가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

2) 예수님의 새벽기도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다. 예수 님은 몸소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새벽기도를 가르치셨다.

새벽기도의 시간 : 새벽 아직 밝기 전에(미명(未明), 어두울 때에) 드리는 기도

새벽기도의 장소 :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새벽기도의 특성 :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밝기 전에 시작하여 밝은 후까지,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 하시더니(막1:35)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벽기도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어두울 때),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에서, 누구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다.

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나?

- (1)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경외하기 때문이다.
- (2)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다.
- (3)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먼저 만나야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

따라서 시편119편을 쓴 기자는 새벽 전에 기도로 부르짖었고(시119:147-148),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행13:22) 기도로 새벽을 깨웠으며(시57:7-8, 108:1-2), 예수님은 아직도 밝기 전, 새벽 미명(未明)에 밖으로 나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으며, 자기의 귀중한 육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봇던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빈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눅24:22-23)

○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시119:147-148)

○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행13:22)

○ 하나님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 하리이다 내 영광아 깔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깔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시57:7-8)

○ 하나님의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 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깔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시108:1-2)

○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 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눅24:22-23)

중국 선교사 헤드슨 테일러는 “내가 새벽에 기도하기 전에는 중국 대륙에 태양이 떠오른 날이 없었다”고 고백한다.

3) 예수님의 철야기도

예수님은 12사도를 뽑는 중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날, 온 밤을 새워 산에서 홀로 철

야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몸소 철야기도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철야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눅6:12-13)

철야기도의 시기 : 12사도를 택하는 중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날 밤에 철야기도

철야기도의 시간 : 어둠기 시작할 때부터 새벽 밝을 때까지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심

철야기도의 장소 : 산에서 홀로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철야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중대한 일을 행하기 전날 밤에는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온 밤을 새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다.

제자들의 철야기도

(1) 온 교회 성도들이 가정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였다.(행12:1-12)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으며, 교회가 팝박당하고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에 온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였다.

(2)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옥중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고난당할 때에, 옥중에서 스스로 철야기도하고 찬송하였다.(행16:16-34)

(3) 철야기도 할 때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함께 있어야 한다.

철야기도 할 때에 바울과 실라와 같이 찬송과 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철야기도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시는 중대한 일을 행할 때에,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에,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즉 중대하고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 온 밤을 새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말한다. 철야기도의 장소는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산이나, 교회나, 위기를 당한 현장에서 예수님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온 밤을 새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행12:1-12, 행16:16-34)

4) 예수님의 산기도

예수님께서는 자주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

산(山)은 세상과 사람을 떠나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며,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1)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고(출3: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다.(출3:5)

○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폐를 치더니 그 폐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 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3:1-5)

(2)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주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마14:23, 뉴6:12-13, 요 6:15),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날 밤에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밤을 새워 철야하시며 기도하셨다(마26:36-45, 뉴22:39-46). 호렙산은 거룩한 하나님의 산,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따라서 산이 많은 한국에서는 산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교회들은 산에 기도원을 세우고, 성도들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3) 산(山)이 과연 거룩한 곳인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창2:16-17)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범죄하였을 때에(창3:6),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셨다(창3:17). 따라서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도 거룩한 땅, 신령한 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호렙산이 거룩한 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곳에 임재해 계신 동안 호렙산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Holy Spirit)이시기 때문이다.(레11:44, 19:2, 20:26, 벤전1:15-16, 계4:8)

○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3:17)

○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레11:44-45, 19:2, 20:26)

○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1:15-16)

○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뱀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계4:8)

(4) 그러면 거룩한 곳은 어디인가?

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몸과 성도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고전3:16)이고, 성령님이 계신 성령의 전(고전6:19)이기 때문에 성도의 몸은 거룩한 것이다. 또한 성도가 사는 가정은 거룩한 곳이다.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맷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3:16)

○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전6:19)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엡1:22),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엡1:23)이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3-24)

○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엡1:22-23)

다) 따라서 거룩한 곳은 산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다.

거룩한 곳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몸과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엡1:22-23)이며, 성도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 저주 받은 땅, 아골 골짜기라도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성전도 거룩함이 떠나게 된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 곳에 임재 하신다.

5) 예수님이 응답 받으신 후에,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1) 오병이어의 역사 후에 기도(마14:13-23)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5병2어로 5000명에게 떡이신 후에,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냐?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냐?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더욱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마14:19-20, 23)

(2)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후에 기도(눅5:12-16)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주신 후에, 한적한 곳에 가사 기도하셨다.

나병을 고치신 능력이 중요하냐?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보다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더욱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눅5:13,16)

예수님은 기도응답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아들과 아버지와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위해 홀로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마14:23, 루5:16)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이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으신 후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들로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3)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롬8:17-18)

자녀가 배가 고프다고 어머니에게 간구하므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음식을 차려주셨다면,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음식인가? 어머니인가? 물론 어머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함께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극복해야 한다.

○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 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8:17-18)

6)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위하여 힘써 중보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중보기도 하셨나?

(1)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에 “시몬아, 시몬아” 하시며, 베드로 의 이름을 연이어 두 번 부르시며,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의 시 험을 막아 주시는 중보기도를 하셨다.(눅22:31-32)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 을 죽이려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연이어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급하게 말씀하신다.(창22:9-12) 이삭의 목숨이 아브라함 의 칼날 앞에서 위급할 때에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연이어 부르 시며, 이삭의 죽음을 막으셨다. 성경에는 위급하고 긴박할 때에 이름을 연이어 두 번 부른 예가 있다.

님을 위한 도고(Intercession)를 드릴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연이어 두 번 부르며, 하나님의 긴급한 마음(창22:12)과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눅22:31-32)으로 기도하 여야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릴 때에, 연이어 두 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다.

○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아킨 후에 네 형 제를 굳게 하라(눅22:31-32)

(2)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 같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 하셨다.(눅22:44)

남을 위한 도고(Intercession)를 할 때에는, 얼굴에서 땀이 피방울 같이 흐를 때 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여야 한다.

○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 같 이 되더라(눅22:44)

(3)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하셨다.

○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5:7)

- 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 도고할 때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
- 나)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통회 자복하는 느헤미야의 회개기도

○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 하였나이다(느1:3-7)

- 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통회 자복하는 에스라의 회개기도(예9장-10장)

○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여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예9:3-6)

○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예10:1)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마니교와 죄 중에 빠져있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많은 눈물의 통곡 기도를 드렸다.

(4) 예수님은 수난 받으시기 전날 밤, 갯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 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마26:38)
- 나)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 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26:39)

○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14:34-36, 뉴22:41-42, 요17:1-26)

3.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

1) 용서의 기도 : 십자가(十字架) 위(上)에서 드린 용서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설교하신대로(마6:14-15) 십자가 위에서 몸소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셨다.

○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눅23:34)

○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4-15)

2) 메시야의 기도 : 십자가 위에서 드린 메시야 곧 그리스도의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드린 메시야 곧 그리스도의 기도

죄 없으신(히4:15)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짊어지신 우리의 죄(罪)이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 까지 버리셨다. 하물며 우리가 다시 범죄할 수 있을까? (롬6:15)

○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27:46)

○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막 15:34)

○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19:30)

○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요19:34)

구약성경 시편에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야임을 예표하는 기도가 있다.

○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돋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시22:1)

3) 마지막 기도 : 십자가(十字架) 위(上)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마4:1-2, 농4:1-2), 기도로 공생애를 마치신(눅23:46), 온전한 기도의 사람 이시다.

○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눅23:46)

4.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8:34)

○ Who is he that condemns? Christ Jesus, who died – 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to life – is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is also interceding for us. (NIV)

○ Who can sentence us to death? Christ Jesus is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is also praying for us. He died. More than that, He was raised to life. (NIV)

영어성경 NIV 와 NIV를 보면, “is also interceding for us.” 와 “is also praying for us.”로 되어있다. 이는 모두 현재진행형이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심을 뜻한다. (현재 진행형)

5.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

- 1)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 2)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 3) 성령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16:7-8)

○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6-28)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룸8:28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가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의 그 “누군가”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 그분의 삶과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기도를 교육하셨고, 기도의 모범이 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직접 행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리랑 찬송가

우리나라 민요

작사 김정복 목사



하 - 나 님 - 아 - 벼 지 - 사 랑 -- 해 - 요 - - - -
예 - 수 님 - 예 - 수 님 - 사 랑 -- 해 - 요 - - - -
성 - 령 님 - 성 - 령 님 - 사 랑 -- 해 - 요 - - - -
할 - 렐 루 - 할 - 렐 루 - 할 렐 -- 루 - 야 - - - -



하 - 나 님 - 아 - 벼 - 지 - 고 - 마 워 요 -
예 - 수 님 - 예 - 수 - 님 - 고 - 마 워 요 -
성 - 령 님 - 성 - 령 - 님 - 고 - 마 워 요 -
할 - 렐 루 - 할 - 렐 - 루 - 할 - 렐 루 야 -



나 - 를 위 하 여 독 생 자 주 - 신 - - - -
나 - 를 위 하 여 십 자 가지 - 신 - - - -
나 - 를 위 하 여 기 도 하 시 - 는 - - - -
할 - 렐 루 야 - 할 렐 루 야 - 아 - - - -



하 - 나 님 - 아 - 벼 - 지 - 감 - 사 해 요 -
예 - 수 님 - 예 - 수 - 님 - 감 - 사 해 요 -
성 - 령 님 - 성 - 령 - 님 - 감 - 사 해 요 -
할 - 렐 루 - 할 - 렐 - 루 - 할 - 렐 루 야 -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하시는 예수님

**WMC 국제기도학교
WMC School of Prayer Int'l**

Rev., Chung Bok Kim

11521 Oakford Ln., Northridge, CA 91326
(818) 765-7517(H) • (213) 500-0962(Cell)
www.wmcprayer.org • wmcprayer@gmail.com